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제6556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아버지장군님의 현지도도표식비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조직과 발전과정에 대한 해설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는 가슴뜨거운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부대의 발전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군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군공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에서 자체로 연구제작한 전투기술 기체들을 돌아주시었다.

전투기술기체들의 성능과 도입실

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머리를 쓰고 열정을 바침으로써 싸움준비에 철저히 필요한 현대적인 기체들을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설계하고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비약하는 군부대일군들의 진취적인 투쟁기풍을 치하하시었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적들의 침략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맡겨진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시고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군부대에서 군인회관을 문화정서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고 다양하고 생동한 직관자료들을 리용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었다.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공원처럼 알뜰하게 정리된 병영구내를 걸으시며 부대지휘관리실태를 알아보시었다.

군부대의 병영과 주위환경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환경을 잘 꾸리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들의 혁명적인 생활기풍, 전투적인 부대관리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군부대에서 전투정지훈련은 물론 부대관리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짜고들어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이 오기를 기다렸다는데 부대를 돌아보니 정말 자랑할만 하다고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군부대장병들은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무적의 담력과 필승의 지략을 안겨주신 최고령도자를 우리러 폭풍갈

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메어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난해 2월 이곳 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지휘부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날 임무수행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일군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후날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부대일군들과 직속부대 군인들을 모두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신 최고령도자를 우리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격정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척의 지지점으로 튼튼히 준비해고있는 군부대장병들을 고무격려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합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뜨거운 격정에 넘쳐 우렁찬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이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639대련합부대와 제534대련합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39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와 제534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대화시 《선군이 안아온 승리의 아침》, 녀성독창과 방창 《장군님 가까이 이엔 병사가 산다네》, 죽판3병창 《천하

제일명장일세》, 남성성창 《그이의 리상》, 선동극 《오늘밖에 없다》, 북과 노래 《단숨에》, 회고록선동 《목숨으로 지키자》, 남성독창 《한마음 따르렵니다》, 소합창 《조선의 힘》, 시랑송 《김정은장군찬가》, 합창 《발걸음》, 극재담 《병사들을 위하여 부부함》, 녀성독창 《아 그리워》, 선동극 《인민을 돕자》, 기악과 노래 《공격전이다》, 막간선동 《비결》, 녀성3중창 《먼저 찾

아요》, 시이악기 《불변의 신념》, 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우리러 《만세!》의 환호성을 목메어 터치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

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풍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에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대는 축전에 참가하여 평가를 받는 것보다 군인들을 교양하는데서 공지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평성학생소년공전이 건설된다

평성시의 중심부에 학생소년공전이 새로 건설되고 있다.

승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은정에 떠받들려 일떠서는 평성학생소년공전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연 건축면적이 수천㎡인 학생소년공전에는 1500석의 극장과 수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각종 소조실들이 그르히 갖추어지게 된다. 평안남도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뭉고 건설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일관

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높고 건속물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우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해 공전건설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뤄지고있다.

평안남도도시설계연구소의 설계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짧은 기간에 공전설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완성하였다.

도청년돌격대, 평성시, 덕천시, 순천시돌격대원들

본사기자

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결성

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결성식이 11일 리마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 베루 김정일주의연구소조, 베루 김정숙도서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베루위원회 등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

말마전 남조선에서 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19대(국회)가 열리면 《통일항아리법》(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계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느니, 《《통일항아리법》을 통과시키는 의미는 19대(국회)가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공동번영과 안정을 위해 선진국으로서 보편적가치와 규범을 전세계에 발신하는 국회가 될것》을 다짐하는것이때문》이라느니 하고 예결 절반, 훈시 절반을 해나섰다.

통일부문력을 넘어서기 전부터 《유연성》을 운운하며 마치도 끌어질대로 끌어질 현 북남관계를 풀어볼듯이 너스레를 떨었던 류우익이 이제는 그 허울마저 완

전히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리명박의 《흡수통일》야망 실현에 뛰어들것이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출현한 첫날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기정사실화해놓고 《통일에 대한 대비》니, 《통일세》 제정이니 하면서 분주랑

로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새로 개편되는 《국회》에서의 통과를 구걸해나선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 《통일항아리》란것이 그토록 거부감을 주고 민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것인가. 그것은 철두철미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적인

세계혁명에 쌓으신 사상리론적업적은 그분들의 존함과 더불어 불멸할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 선 당과 인민의 투쟁강령일뿐아니라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지도사상, 투쟁강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세계자주

를 위한 항쟁을 해내고 있으니 그것이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것은 당연하다. 사실 좋게 발전하던 북남 관계를 완전파탄시키고 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한 남조선의 대결 《정권》인 《통일재원》에 대해 운운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통일은 재원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리명박과 같은 극도의 반통일분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파괴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하자면 역적대당을 청산하는것이 급선무이다.

리명박보수당국의 기만적인 통일을 바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명박보수당이 저들의 헛된 욕망만을 앞세우며 대결과 전쟁을 불

본사기자

《통일항아리》는 분렬항아리

을 피워냈으며 저들의 협력차단책동으로 루적된 《남북협력기금》마저도 여기에 처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통일세》제정논에 대해 당장 바닥에 떨어지진 《남북협력기금》 집행물부터 끌어올리라는 등으로 남조선 각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통일항아리법》으

《대북정책》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리명박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이란 《흡수통일》을 노렸던것이며 따라서 모든 《대북관계》정책수립과 집행이 여기에 복종되고있다.

그러니 《통일항아리》란 더욱더 극단한 대결만을 초래할 대결항아리, 분렬항아

을답자가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남조선인민들을 포함한 온 민족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을 바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명박보수당이 저들의 헛된 욕망만을 앞세우며 대결과 전쟁을 불

본사기자 최명제



창광원식목육량과 인민아외빙상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난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면서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있는 남녘겨레와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낮이나 저녁이든 그의 인사말은 열병광장을 메운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마음속에 격랑을 일으켰다.

남조선출판물 《한국경제》가 경축의 단상에서 연설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동격을 전하면서 김일성주석을 찬양하시니 한 것처럼 그의 모습은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밤늦게 열병식에서 연설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1945년 개신연설을 하시던 김일성주석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동포 사회의 화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긴 연설에서 사람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열렬한 민족애를 가슴속까지 절감했다.

그의 연설에는 아버지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덕망

한 민족, 한 식솔

이 그대로 비껴있었고 절세위인들의 유훈대로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하실 굳은 의지가 어려웠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통일과 민족대번영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를 안아오신 것도 북만이 아닌 남조선과 해외의 온 겨레를 위해서였다.

절세의 위인들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전 기간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만나시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따듯이 이끌어 주시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전민족을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로 이끄시고 보살펴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은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위인의 유모아

《관람료》

는 요리도 내가 맛보게 될 게 아닌가, 부인이 만드는 요리집수는 후하게 매기겠으니 떨지 말고 꼭 데리고 오라고 거듭 권하였다. 그의 부인이 독서와 가곡관람을 즐긴다는데 대해 아시고는 평양에 와서 《피바다》, 《꽃파는 처녀》와 같은 혁명가극도 관람하고

있는 동포들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오랜 세월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시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가며 조국통일을 위해 책임적이고 도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것을 보면 그이께서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해 얼마나 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가를 잘 알수 있다.

탁월한 정치실력과 한없이 자애로운 덕망으로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이어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있다.

김희숙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지켜나가자면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있는 민족성은 곧 민족의 넋이다. 나라의 부강과 민족대번영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민족의 넋을 고수하고 면면히 이어가는데 참다운 애국애족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에 대하여 회고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뜨겁게 추억하신 리기영은 《카프》 사건으로 두차례나 감옥생활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감옥문을 나선 다음에도 애국적인 문인으로서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사후에 멀다하게 경찰기관에 끌려가 전향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그에게

일본말로 작품을 쓸것과 일본말로 친일강연을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조선글로 소설을 써내어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대담하였다. 살림살이가 얼마나 궁색했는지 물레야들이 죽었을 때 장례비가 없어 자식의 시신을 옆에 두고 《돈》이라고 이국명에서 친선만고하고

어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의 누에알을 가지고 조국으로 왔다. 그의 민족적량심과 애국성에 대해 수령님께서 회고에서 해방후 남조선에서 온 그를 만났을 때 조선사람의 일을 가지고서는 미군정의 치하에서 도저히 살아갈수 없다고 토설하던 말을 들으면 그가 민족적자존심이 매우 강한 학자라는 생각을 더욱 깊이하게 되었다고 감회깊이 더듬으시었다.

해방전에 그는 수재로 이름났기때문에 일본의 어느 대학원구원을 졸업하자

그는 창씨개명을 하면 개아들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자신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성과 이름을 갈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 민족이 낳은 세계적인 유전학자이며 육종학자인 게 응상도 민족적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고 신념이 송죽같은 사람이었다.

해방전에 그는 수재로 이름났기때문에 일본의 어느 대학원구원을 졸업하자

그의 열병식을 무대에 올렸을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작품을 보시었다. 작품에서는 아직 라프츨의 원리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고 여러모로 어설플테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연을 보시고 발전이 빠르다고 치하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형상에서 나타난 단점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시었다.

라프츨은 모든 동작을 라프화해야 한다. 라프츨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자면 무용가들이 발구르는 소리가 그대로 나게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지금 기세로 계속 내밀면 라프츨으로 형성한 훌륭한 무용작품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다고 고무하였다.

그날만이 아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 라프츨의 무용작품을 보시고 우리 식으로 완성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기울이시었다. 그러시면서 관람자들의 심리까지도 헤아리시며 군인들이 라프츨을 보면 좋아

본사기자 리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서 민족의 넋

하나의 춤가락에도

의 열병식》을 무대에 올렸을 때였다.

작품에서는 아직 라프츨의 원리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고 여러모로 어설플테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연을 보시고 발전이 빠르다고 치하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형상에서 나타난 단점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시었다.

라프츨은 모든 동작을 라프화해야 한다. 라프츨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자면 무용가들이 발구르는 소리가 그대로 나게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지금 기세로 계속 내밀면 라프츨으로 형성한 훌륭한 무용작품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다고 고무하였다.

그날만이 아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 라프츨의 무용작품을 보시고 우리 식으로 완성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기울이시었다. 그러시면서 관람자들의 심리까지도 헤아리시며 군인들이 라프츨을 보면 좋아

본사기자 리철



자주시대의 대기념비로 우뚝 솟아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

번영하는 조선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가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센터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올렸다.

방문기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주체사상세계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평양시가 불과 한해사이 어떻게 변모되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에서 우리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연설을 직접 듣는 영광을 지니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의 대추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조선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태양기 휘날릴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하여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있지만 조선은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은 자주성과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수십년간의 제재와 봉쇄하

다른 이름있는 예술단들의 공연도 실컷 구경하도록 하라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런데 반가운 손님일수록 관람료를 많이 받고 불청객일수록 관람료를 낮게 받으려고 하는데 겁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담화석상에는 시종 유쾌한 웃음살이 넘쳐났다.

본사기자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근본정신을 실현하는 정치》

재미주사상연구소 소장인 재미동포 김현환이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근본정신을 실현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실었다.

필자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연이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을 자주성이라고 정의하고 자주성이 사회적인간의 생명이라고 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실시하신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 민중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군대를 강화하고 주체사회주의를 군사사회주의로 지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을 밝혀주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

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군대를 먼저 조직하시고 군사력에 의거하여 조국해방투쟁을 시작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군사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어 항일투쟁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 이북군대와 민중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도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방공화공위협을 막아주었다. 특히 1990년대에 벌어진 주체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북민중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지키는데서 무장투쟁의 위대한 역할을 뚜렷이 확증하여주었다. 군대와 민중이 주체사회주의를 결사수호

할 각오를 안고 령도자와 일심단결하여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과정에 그것은 이북의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완성되는 정치에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서슴없이 감행하면서도 이북을 감히 침략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은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된다. 현실은 이북의 군사력이 주체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힘있는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선군정치는 가장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시대정신으로 하여 조국의 독립전쟁을 이룩해가는 가장 힘있는 정치이다. 자주성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중의 투쟁은 올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전진하고 승리한다. 지난 시기에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여왔으며 로동계급의 사회변혁론이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선군시대는 혁명군대의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시대이다. 민중의 군대는 로동계급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 군대가 발휘하는 혁명적기질로 하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된다.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이 있어 민중의 군대보다 강한 사회적집단은 없으며 민중의 군대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은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진보개혁세력을 말살하려는 비렬한 책동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이미 고인이 된 전 《대통령》로무현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하의 독기를 내뿜고있다. 역적패당은 《재수사》를 구실로 이른바 로무현법정 정치자금논의사건을 또다시 꼬집어냈다.

지난 5월 9일부터 파쇼검찰을 동원하여 《로무현차명계좌》를 들추기 위한 수사놀음에 몰라붙었으며 3년 전 이에 관여한 전 경찰청장 조현오와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리인위 등을 《중인》으로 내세워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흘리며 갖은 의혹들을 증폭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부터 로무현의 딸이 미국류학기간 류숙한 주먹이 《비자금으로 구입》한것이라며 복다소동을 피우고 최근에는 이미 법적처리가 된 로무현의 형 조경영의 《비리사건》을 다시금 들추어내어 수십억대의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허튼 여론을 내뿜으면서 비렬하게 놀아내고있다.

이 모든것은 전직 《대통령》을 음모적방법으로 타살하고도 모자라 3년이 되는 오늘날에 와서까지 그의 명운을 짓밟아대는 비렬하고 악랄한 만행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로무현과 그 가족, 친척들에 대한 당국의 수사놀음을 《너절한 정치보복》, 《로무현세력죽이기》라고 규탄해나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력사의 진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밝혀지거 마련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4년전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로무현이 고향에 내려와 살다가 심리적이고통과 질망, 저주와 원한, 항거가 담긴 짧은 유서 한장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은 철두철미 리명박 《정권》의 비렬한 정치탄압의 결과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의 《로무현죽이기》작전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로무현이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직후 역적패당이 남조선 각계층이 조의표시도 제대로 할수 없게 수많은 경찰을 내몰아 사람들을 모일수 있는 장소들을 모조리 차단봉쇄하고 조의식장을 들부시며 조문객들을 마구 끌어가는 횡포를 감행함으로써 민사들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었던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지어는 전 《대통령》 김대중이 추모연설을 하려는것도 가로막고 로무현을 상징하는 노란기발이나 노란색으로 된 물건들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들어가는것마저 불허하는 행동을 부렸다. 이번엔 그 무슨 《로무현차명계좌》의혹을 다시 류포시키고 재수사놀음을 벌여놓는것 역시 역적패당의 범죄적인 《로무현죽이기》작전의 계속이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리명박과 측근들, 친인척들에 의해 빛어진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이 연이어 터져 가뜰스나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는 보수 《정권》을 더욱 헤어날수 없는 파멸의 진흙탕속에 몰아넣고있다.

이로부터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역적패당이 집권당에게 또다시 들추어내어 복다소동을 피우고있는것이 《로무현차명계좌의혹》에 대한 수사놀음이다.

그 비렬한 책동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로무현향수에 찬물을 끼얹고 민주개혁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보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리명박이 집권하면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뭔가 큰일이라도 해놓을것처럼 분주량을 퍼웠지만 결과는 북남관계와 민주주의를 맺실년 후회시키고 된 물건들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들어가는것마저 불허하는 행동을 부렸다. 이번엔 그 무슨 《로무현차명계좌》의혹을 다시 류포시키고 재수사놀음을 벌여놓는것 역시 역적패당의 범죄적인 《로무현죽이기》작전의 계속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을 두려워한 보수패당은 서둘러 그 향수를 꺼버리려고 또다시 비렬한 수사의 칼을 빼어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명박독재세력은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하여 퇴출시키고 《안건》을 보장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리명박패당의 《로무현죽이기》작전은 북남관계를 좌국으로 몰아넣을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동족대결정도를 앞으로도 더욱 악랄히 벌리려는 친미보수세력의 단말마적발악이기도 하다.

사실 로무현에 대한 정치적타살은 6.15시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매도하고 복수의 칼을 갈아온 극우보수세력이 끝끝내 감행한 비

렬한 정치적폭수이고 북남공동선언과 그 지지세력을 짓밟아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야만적폭거였다. 력사적인 10.4선언의 체결 당사자인 로무현을 고의적으로 타살하고도 모자라 역적패당은 또다시 2중, 3중으로 이전 《대통령》을 매장해버림으로써 다시는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권력이 무한정 지속되게 만들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사실들은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패륜집단, 후안무치한 정치강패들이라는것을 날날이 발가벗고있다.

그들이 제야무리 오그랑수를 써가며 갖은 모략소동에 매달려도 진실은 가리울수 없고 독재권력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이다.

오늘에 와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지 체험을 통해 누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말살하는 진짜 나쁜놈인가를 똑똑히 간파하고있다.

리명박과 그에 빌붙어 온갖 악행을 다해온 《새누리당》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결코 피할수 없다. 김철호

식민지에 또다시 비끼는 어두운 그늘

얼마전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선거》가 그러하지만 특히 《대통령선거》는 미국이 저들이 짜놓은 각본을 실수없이 연출하기 위해 품을 제일 많이 들이는 항목이다. 실제로 남조선에서 지난 기간 진행된 《대통령선거》들은 미국의 로골적인 압력과 개입을 떠나 생각조차 할수 없다. 60여년전 《단독선거》를 배후조종하여 저들의 총실한 주권인 리승만 《정권》을 조작해낸것도 미국이고 5.16쿠데타는 물론이고 기만적인 《6.29선언》, 《3당합당》 등 온갖 각본을 연출해내고 음모양모로 힘을 행사하여 독재 《정권》을 연장해온것도 미국이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시에도 미국은 수많은 선거전문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선거》작전을 막후 지휘함으로써 벅속까지 친미인 리명박을 당선시키고 패배를 올렸다. 리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상전부러 찾아가 위협천만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개방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한것 도 상건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미국은 어떻게 하나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시켜보려고 국회의원단과 대조선전문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는 놀음을 벌린 것이다. 《대선》후보로 지목되는 인물들중에서도 박근혜를 제일먼저 만나고 보수패당의 동족대결과 친미사대매국책동을 극구 비호해나선 것도 인민들의 규탄배격으로 《정권》심판의 함정에 걸췌이 빠진 역적패당을 구원해 주고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해보기 위한 미국의 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통합진보당내분사대와 그를 기점으로 한 《정권》의 대대적인 진보세력탄압만해도 남조선에서 진보개혁 《정권》의 출현을 막고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친미골충 《정부》를 기어코 다시 만들어내려는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상을 잘 보여 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오늘날의 남조선은 어제날의 반미무풍지대가 아니다. 한국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통간하고 주무르던 시대는 지나갔다.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은 오는 《선거》에서 사대매국적이며 파쇼적인 친미보수 《정권》의 영원한 종말을 선언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동향을 띠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무엇을

외세의 더러운 전쟁머슴군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그 무슨 《유사시 즉각대응을 위한 대비태세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최대규모의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쉐더》 연습이 란것을 벌리었다. 그런가하면 미군주도의 《림팩》 합동 군사연습에도 참가할것이라느니,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도 강행할것이라느니 뽀니하며 외세와의 군사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북침전쟁책동들은 외세의 전쟁사한군이 되어 동족을 기어이 해치고 미국의 대아시아제패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하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이다.

이번에 내외호전광들이 벌린 《맥스 쉐더》 연습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군부가 주도하고 미7공군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 호전광들은 지난 시기보다 훈련기간과 훈련종류를 2배로 늘이고 6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강도 높히 벌리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이번 《맥스 쉐더》 훈련은 북에 대한 전면공격과 공수부대의 대북침투까지 가사한 전쟁연습》, 《《한》반도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위험한 전쟁도발훈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남조선군부가 획책하고있는 미군주도의 《림팩》 합

동군사연습참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태평양양에서 정격적으로 벌리고있는 《림팩》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군이 참가하러는것은 그들이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돌격대가 되어 외세와의 공도결탁면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남조선호전광들이 광란적인 행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그 누구의 《누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것이 라느니, 《《한》》를 위한것이 라느니 뽀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를 되풀이했지만 그것은 저들의 북침전쟁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꾀변에 불과하다. 리명박이 미

국적의 수족이 되어 반공화국 전쟁소동에 광분하는 목적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전조건을 미국의 대아시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

지금 리명박보수패당이 내외의 규탄을 무릅쓰고 강행하고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과 제주해군기지건설 책동도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뻗음을 몰아오고 조선반도를 령향들의 싸움마당으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서 주변나라들에서까지 경계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히 울려나오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리명박역도패당이야말로 《을사오십년》을 흉가하는 특등매국노들이고 외세의 더러운 전쟁머슴군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국적의 수족이 되어 반공화국 전쟁소동에 광분하는 목적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전조건을 미국의 대아시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

지금 리명박보수패당이 내외의 규탄을 무릅쓰고 강행하고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과 제주해군기지건설 책동도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뻗음을 몰아오고 조선반도를 령향들의 싸움마당으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서 주변나라들에서까지 경계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히 울려나오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리명박역도패당이야말로 《을사오십년》을 흉가하는 특등매국노들이고 외세의 더러운 전쟁머슴군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최근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 민주에 대해 침방울을 튀겨가며 역설하고있다.

광주인민봉기 32돌이 되는 지난 18일에도 《새누리당》은 광주인민봉기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분출이었고 군사 《정권》의 폭압에 대한 의롭고 소고한 저항이었다.》면서 그때의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야당의 《부정과 위선 그리고 폭력》으로 파괴되고있다고 역설하였다.

낫가죽이 곰팡통보다 더 두려운자들의 꾀변이라 해야 할것이다. 수십여년전 광주에서 일어난 인민봉기는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이었고 그를 야수적으로 진압한것은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군부파쇼광들이었다. 광주를 피바다우에 잠그고 두손을 인민들의 피로 적신 살인마 전두환, 로태우

군부파쇼세력이 만들어낸 《민정당》, 《민자당》의 후예인 《새누리당》이 마치도 저들은 광주학살에 관계가 없는 새로운 세력인듯이 《군사 《정권》의 폭압》이니 뽀니 하고 지껄어낸것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낼 일이 아닐수 없다.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야당에 의

민족과괴자의 《민족》타령

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있는듯이 떠든것도 가소로운 추태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 《정권》 4년 수개월간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원한과 증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민의를 짓밟고 파쇼독재에만 매달려온 《실용정권》을 도와주고 극력 비호후둔하며 범죄를 일삼아온 공범자가 바로 《한나라당》이고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국회》에서 날치기, 전횡을 밥먹듯

일삼아 폭력 《국회》, 색은 《국회》를 만든 죄악만도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누리당》은 언론사조조파업과 미국산 소고기수입 반대투쟁, 노동자들의 해고반대투쟁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존권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 활동을 《불법파업》, 《친북파괴행위》 등으로 몰아가며 파쇼적인 핑기를 부리고있다. 지어 시대착오적인 《종북세력척결》을 부르짖으며 진보세력을 완전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있다. 독사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역시 독사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민주》타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파쇼와 대결로 얼룩진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감출수는 없다. 김응철

5월정신 계승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자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 광주봉기자들을 추모

미국과 전두환 군사파쇼독재광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20일 광주 망월동묘지에서 진행되었다.

진보련대와 범민련 납북본부,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임에 참가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광주민주항쟁이 있는 때로 부터 3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봉기자들의 자주, 민

주, 통일념원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현 《정부》가 《친안》호 사건을 구실로 복파의 교류, 협력을 중단하고 반공화국심리전을 재개하였으며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끊임 없이 벌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5월정신을 계승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며 민중의 세상을 안아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광주인민봉기 32돌 전야제 진행

폭압만행을 규탄

남조선의 강정마을회가 18일 제주도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도지사의 폭압만행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이날 제주도지사가 경찰과 강제력을 내몰아 해군기지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도청앞에서 항의투쟁을 벌리던 활동가들에게 폭행을 가하다 못해 지어 4명을 강제연행하는 파쇼적폭행을 감행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도지

사는 필요없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도지사 퇴진운동도 함께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은 공작의 명수

년 8시로 공표되었다. 투표소 위치안배가 엉터리인 경우도 많았다. 공보물이 투표 전달까지 한테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박근혜의 부정 《선거》 운동은 물론 갖가지 부정 《선거》를 저지른 손수조는 무사히 제 표를 계산하지 하게 되었다. 공정한 《선거》 판리를 총체적으로 의심케 할수 있는 강남부정투표합산은 사실 4.11부정 《선거》의 축소판이었다.

사실 누구보다도 4.11부정 《선거》의 주인공은 4.11 《총선》에 정치생명직접 걸렸던 박근혜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지단체가 작년에 옥천군인 320명에게 공짜판권을 시켜준것이 발각나기도 했지만 4.11 《총선》과 관련해 박근혜의 대표적이지 않은 《선거》 운동사 하나가 바로 손수조와 벌린 쌍두로출 사건이다. 선관위는 당연히 유아무야시였다. 그것은 매우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며 부정스러운 《새누리당공천》자들에게 앞뒤가리지 말고 《선거》부정에 적극 뛰어들러는 신호탄같은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성추행범 김형태, 문묘표 절법 문제성장은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당선되었다. 또한 19대 《총선》은 4월 12일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을 포함해 1096명이 립건되고 그중 39명이 구속된바 37명의 당선자를 포함해 792명이 립건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당선자수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두배나 늘었다. 이는 일제감치 부정 《선

도로 탄압해왔다. 외부의 《간첩조작》 사건과 려게시키고 당원들을 계속 《보안법》으로 탄압해온 《종북소동》을 일으켜 당분열에 이르르게까지 하였다. 2010년에는 전교조, 공무원, 로조원의 당원가입을 조사한다며 당 홈페이지세비강탈을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상한것은 미국이 아주 골치거리로 여겼을 이번 진보정통합의 과정에서는 야권련대아래의 《총선》 직전에서는 막상 구민주로동당 또는 통합진보당을 위해 공격하는 대대적인 탄압이 없었다는것이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다른 공작에 유효하고있었다는 증거다. 즉 이번 통합진보당사태가 결코 미국과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안에서 자연발화했다고 보는것은 공작의 확률보다 아주 훨씬 적다. 더구나 미국, 리명박 《정권》이 로골적으로 10.26부정 《선거》, 4.11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마당에 이번 통합진보당사태가 미국, 리명박 《정권》과 무관하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이번 통합진보당사태의 본질은 심중팔구 《화학적통합》에 이르지 못한 통합진보당안에서 외부공작에 의해 구민주로동당의 약점이 헤집어졌기》으로 보는데 맞다. 모두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수습해야만 한다. 일단 당내세력 누구도 내부갈등에 매몰됨이 없이 반기, 반리명박 공동전선, 공동실천을 견결하게 사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 투쟁지형에서 헤집어진 약점을 수습, 혁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2MB용량으로는 할수 없는것이다. 최근 이 땅에서 미국이 가장 근심스러워했을 짐은 무엇이었을까? 10.26부정 《선거》로도 이기지 못한것이다. 야권련대. 그런데 야권련대를 누가 주도하고있는가? 바로 구민주로동당이자 현재의 통합진보당이다. 결국 미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진보민주진영과 야당들이 부랴부랴 통합과 련대를 서두르는 악자한 틈을 타고 한편으로는 《국가》적, 조직적 부정 《선거》를 방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파악한 구민주로동당의 약점을 헤집는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한다. 결과가 말해주는 바 지금 통합진보당은 공안검찰에 의해 쓸데없이 되었다. 민주통합당은 멀쩡한데 《야권련대 파기》 발언을 흘리고있는중이다. 주지하다싶이 미국과 리명박 《정권》은 민주로동당을

미국은 공작의 명수 4.11부정 《선거》에서 독재 《정권》의 유일한 버림목 《한미동맹》은 가동되지 않았을까? 거꾸로 말하면 미국은 뼈속까지 친미친일색으로 물든 리명박이 류례없는 부정 부패, 불법사찰로 초죽음이

보수재집권을 노린 무분별한 탄압광대극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소동이 벌어졌다.

결과 통합진보당은 20만명이 넘는 당원들의 정보와 기록이 담긴 당원명부 등을 압수당하였으며 여러명이 연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파쇼경찰은 압수수색과정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막아서며 항의했다고 하여 《가담자전원을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며 야수의 이발술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사소한 내부문제를 가지고 사법당국이 정당의 중앙장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까지 강탈해간것은 남조선의 정당력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한다.

군부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이번 폭압사태는 《종북세력척결》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극악한 대결파쇼당동으로서 동족을 반대하는 또 하나

의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명박 《정권》은 집권기간 저들이 저지른 온갖 반인민적악정과 반민족적, 반통일적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규탄을 받고 총과산의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침전쟁책동과 같은 동족대결소동에 매여달리는 한편 남조선전역에서 《색갈론》과 《종북세력척결》을 떠들며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선거》에서 수백만명의 지지표를 받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주종세력》, 《간첩집단》으로 몰아붙이며 감행되는 리명박 《정권》의 야수적인 탄압소동은 그들의 대결광기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사회적, 학계가 《정당정치

에 대한 정치탄압》, 《과잉개입》이라고 불만과 격분을 표시하고있는 반면 《새누리당》만은 《합당한 조치》라고 떠들며 파쇼적인 진보세력탄압만행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리명박 《정권》과 이른바 《차별화》를 떠들던 《새누리당》이 총출동하여 벌이고있는 진보세력탄압만행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반수이상의 《국회》의석수를 차지했다고 했지만 득표율에서는 야권연대를 한 진보개혁세력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보수집권세력으로서의 야권단일화가 앞으로의 《대선》에서도 큰 장애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리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내부에서 일부 혼란이 일어난것을 기회로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측이기에

발악적으로 나선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다. 보수집권세력이 다음차례로 노리는것은 거대야당으로 된 민주통합당이다.

검찰당국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의혹》뿐 아니라 《야권단일화관련 여론조작의혹》과 《핵심인물들의 금융관련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기세등등해서 날치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수계거리들은 야권연대를 허물고 오는 12월 《대선》에서 어떻게 하나 보수재집권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략과 파쇼탄압만행은 현 리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쇼적기질을 더욱 드러내는 것으로써 중당에는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김정혁

《더이상 갈데가 없다.》

이 말은 남조선에서 눈코 뜰새없이 러지는 리명박과 측근, 친인척들의 편이온 부정부패행위로 하여 보수총내부에서 러져나오는 한술과 비관이 섞인 목소리이다.

리명박 《정권》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그 몇가지 실례만 보기로 하자.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지금까지 흑막속에 가려져있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주범이 다

지질러졌다고 우겨대던 리명박의 말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낯두꺼운 거짓이며 불법사찰의 총지휘자가 바로 리명박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이런 속에 최근에는 권력층에서 《상왕》으로 떠받들리던 리명박의 친형 리상득이 부산지축은행사건에 걸속이 개입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리상득이 어느 기업체

하여 자기의 친형에게 100억원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청와대의 하급관리에 불과한 행정관이 이 정도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 차관급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더 말할것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세력들속에서는 《장, 차관급들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혹은 많았지만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비리에 연루된것은 처음》이라며 《도덕성에 대해 리명박 《정권》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아우성을치고있다.

실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악취풍기는 시궁창의 원천이다.

이러한 부패세력이 또다시 재집권하여 부정부패로 영영한 영달을 누리려 하고

더이상 갈데가 없다

가 2010년 6월 부산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보게 한 사건의 배후자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진것이다.

리상득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전에 리상득은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수많은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해놓고 그것을 사용한것이 드러난바 있다.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대다고 리명박과 리상득을 비롯한 보수 《정권》의 최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본따 그 수하하늘들도 권력을 휘둘러 부정부패를 일삼던것이 이번 밝혀졌다.

지난 21일 남조선의 언론들은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소속의 한 행정관이 미래지축은행 회장에 압력을 가

2010년 6월 부산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보게 한 사건의 배후자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진것이다.

리상득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전에 리상득은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수많은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해놓고 그것을 사용한것이 드러난바 있다.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대다고 리명박과 리상득을 비롯한 보수 《정권》의 최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본따 그 수하하늘들도 권력을 휘둘러 부정부패를 일삼던것이 이번 밝혀졌다.

지난 21일 남조선의 언론들은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소속의 한 행정관이 미래지축은행 회장에 압력을 가

2010년 6월 부산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보게 한 사건의 배후자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진것이다.

리상득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전에 리상득은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수많은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해놓고 그것을 사용한것이 드러난바 있다.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대다고 리명박과 리상득을 비롯한 보수 《정권》의 최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본따 그 수하하늘들도 권력을 휘둘러 부정부패를 일삼던것이 이번 밝혀졌다.

지난 21일 남조선의 언론들은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소속의 한 행정관이 미래지축은행 회장에 압력을 가



남조선신문 《한겨레》 불법사찰주범을 시급히 밝혀낼것을 주장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7일 《국무총리》 실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지른 불법사찰의 주범을 하루속히 밝혀낼것을 주장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얼마전 불법사찰의 지휘체계를 담은 내부문건이 공개되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고 썼다.

이에 의하면 지원관실이 리명박의 친위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며 활동정형을 비공식

적인 선을 통해 청와대를 거쳐 리명박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는것으로 되어있다고 사실을 밝혔다.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관실이 사찰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적이 있지만 관련자료가 구체적인 문건으로 공개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검찰이 불법사찰문제를 놓고 몇달이 지나도록 청와대주변에서만 맴돌고있다

고 사실은 비난하였다.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중에서도 리명박과 청와대 사건의 주범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한둘이 아니라 하면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사건추소, 은폐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있는 현 법무 장관의 소환조사도 꺼리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통합진보당 와해시키려는 4단계 씨나리오》

남조선의 인터넷방송인 《민중의 소리》가 《통합진보당 와해시키려는 4단계 씨나리오》라는 제목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이 쓴 글을 실었다.

같은 다음과 같다.

《통합진보당에 몰아친 내분과 외압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고있다.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당원명부를 압수한것이다.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야당을 물리적으로 탄압하였던 사법적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있다.

리명박 《정권》의 사법당국이 통합진보당에게 자행한 사법적폭거는 통합진보

당 내분사태에 수구우파 《정권》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통합진보당사태가 구당권과 대 신당권과의 분쟁구도를 넘어 통합진보당 대 리명박 《정권》의 대립구도로 진화,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수구우파연론은 마녀사냥식 음해모략으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를 도려내려는 이른바 《적출공작》을 밀어붙였다. 수구우파연론의 《적출공작》은 통합진보당이 예써 구축한 대 중적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릴

으로써 수구우파 《정권》의 사법당국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개입할 길을 주었다. 통합진보당에게 자행된 사법적폭거에 대해 대중들은 공분을 느끼지 않는 평행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명백하게도 수구우파 《정권》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직접 개입한 목적은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는데 있다. 수구우파연론의 구당권파와 《적출공작》이 이제 부러는 수구우파 《정권》의 통합진보당와해공작으로 증폭, 확장되고있다는 사실을

나가는 구동축 한쪽을 제거해버리는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구우파연론의 구당권파와 적출공작→수구우파 《정권》의 통합진보당 와해공작→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파탄→수구우파 《정권》의 재집권으로 이어지는 4단계 씨나리오가 작동되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4단계 씨나리오를 간단하게 표기하면 적출→와해→파탄→재집권이다. 수구우파연론의 악의적 대공작이 휘말려 구당권파에게 무모한 돌팔매질이나 할게 아니라 수구우파 《정권》의 재집권이라는 최종목적에 향해 날로 악화되는 통합진보당사태의 본질적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본사기자

류레없는 정치적폭거, 진보정당의 뿌리를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

남조선검찰이 21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의혹을 밝혀낸다는 구절로 야당인 통합진보당 당사를 강제수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청소속 48명의 검찰수사관들과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이날 아침 서울 대방동에 있는 당사에

달려들어 봉사기관리업체와 이번 《선거》를 관리한 업체 등을 포함 3곳에 대한 수색에 돌아왔다.

황포한 탄압소동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통합진보당 성원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원명부 등 주요자료

들이 들어있는 봉사기들을 떼내며 경찰청으로 압수하였다.

파쇼경찰의 무지막지한 망동에 항의하여 통합진보당은 22일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검찰의 강제수색소동은 정당정치활동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현정사상 류레없는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폭력을 동원하여 당원명부를 탈취한것은 명백한 정치적탄압행위이며 진보정당의 뿌리를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의 발로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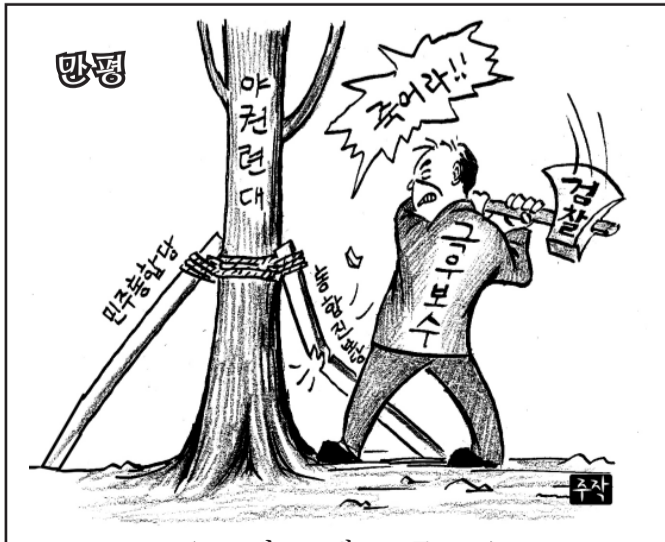
그들은 검찰의 이번 강제수색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나 야권을 분열시키고 통합진보당에 부정적단의 감투를 씌워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하면서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색갈론》소동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며 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물고늘어지고있다.

《통합진보당은 간첩집단》,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면 누구를 대



《색갈론》소동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며 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물고늘어지고있다.

《통합진보당은 간첩집단》,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면 누구를 대

변할수 없는 파쇼기질

변하겠는가.》라고 통합진보당을 전면공격, 비난하고있으며 검찰을 내세워 부당한 압수수색까지 벌여진 보당측이기에 나서고있다.

그속에서 《새누리당》원내대표 리한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 저들의 정치적당도 비명에 간 《대통령》을 꺼내어 강선롭게 욕하는 인륜도덕도 없는 망랑짓을 하였다.

《남조선력사상 가장 수

《색갈론》소동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며 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물고늘어지고있다.

《통합진보당은 간첩집단》,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면 누구를 대

변할수 없는 파쇼기질

변하겠는가.》라고 통합진보당을 전면공격, 비난하고있으며 검찰을 내세워 부당한 압수수색까지 벌여진 보당측이기에 나서고있다.

그속에서 《새누리당》원내대표 리한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 저들의 정치적당도 비명에 간 《대통령》을 꺼내어 강선롭게 욕하는 인륜도덕도 없는 망랑짓을 하였다.

《남조선력사상 가장 수

치스러운 사건》, 《정치보복에 의한 정치탄압》이라고 인민들이 격분한것처럼 로무현 전 《대통령》의 사명은 리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빚어낸 정치적비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저들이 정치타살한 고인을 더러운 목적실현

《로무현재단》의 리사장인 문제인의 목을 따는 단화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다.

파쇼와 독재, 폭력만을 아는 폐륜아들의 망둥이며 오만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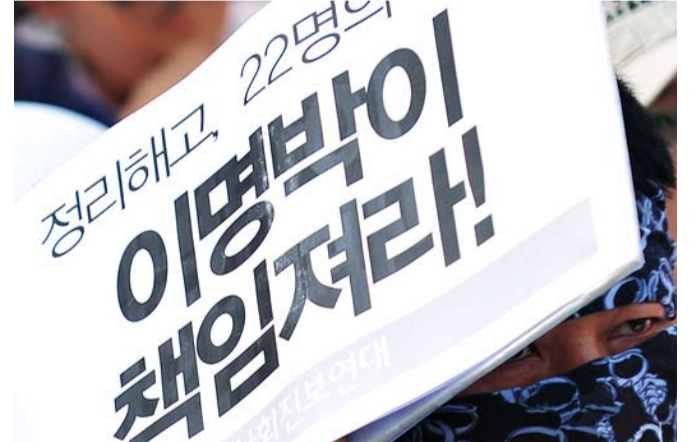
로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자의 욕설은 단지 그

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하는것이란 단화, 미국산 소고기수입문제에서 리명박 《정권》과 같은 립장을 취하고있는것이 그렇다.

리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사건들과 민간인불법사찰사건 등에는 입만 뻐긋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총선》문제에 기를 쓰고 달려들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아도 반대세력에 무조건 《색갈론》을 씌우던 리명박 《정권》의 파쇼기질 그대로이다. 《새누리당》이 간판을 바꾸어달았다고 해서 그 파쇼기질이 달라질수는 없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국회》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대선》의 승리로 먹여놓은 먹처럼 여기며 오만과 껌기를 부리고있는 《새누리당》의 앞으로 남조선사회의 어떤 것은 구름을 몰아오겠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리영호



일본사무라이들에 의한 임진전쟁의 도발과 극악한 살인락탈만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학학회비망록

일본침략자들이 임진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참화를 들뜨운 때로부터 420년이 되었다. 임진전쟁은 철두철미 일본사무라이들의 령도강압야망과 해외침략정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도발된 부정의 침략전쟁, 역사에 류례없는 살인전쟁, 락탈전쟁이었다.

1. 임진전쟁은 일본사무라이정권의 조선침략정책의 범죄적산물

임진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피수로 한 일본사무라이정권이 우리 나라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더 많은 토지와 재부를 강탈하려는 야망 밑에 계획적으로 도발한 해외침략전쟁이었다.

15~16세기 일본에서는 권력과 재부를 강탈하기 위한 명주들사이의 싸움이 100여년간 지속되었다.

이 동란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 봉건명주들을 정복한 후 1585년에 국경을 총괄하는 판백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에 들뜬 호전적인 사무라이였다.

1577년 도요토미는 앞으로 규슈를 정벌하고 《그 군사로 조선의 400여주를 차지함으로써 명나라의 판도로 삼을것》이라고 호언하였으므로 후날 세 나라(조선과 명나라, 일본)를 합쳐 하나로 하는것이 자기의 오랜 소망이라고 떠벌였다. (《일본전사》 조선역 구참모본부편, 《일본의사》 권15)

하지만 임진전쟁의 주체는 원인은 도요토미개인의 과대망상으로 부터 생겨났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두한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사회계급적모순의 반영이었다.

1590년 도요토미정권은 전국에 대한 통일을 초보적으로 달성하였으나 날로 극심해지는 사회적계급모순의 해소와 정치적안정, 상업적리익을 보장해줄수 있는 대외시장의 확대 등의 난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100여년간 계속된 내란은 인민들의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켰을 뿐 아니라 봉건명주들의 불평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도요토미정권은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자국민들의 반봉건투쟁의 에불을 회피하고 사무라이들의 불평불만을 락탈과 치부로 누착하며 반대파 명주들의 세력을 군사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한편 많은 토지와 재부를 요구하는 대봉건명주들과 상인들의 야욕도 채워주려고 꾀하였다.

결국 정권을 유지하며 더 많은 령토를 차지하고 《대국》의 군주가 되어보려는 도요토미의 야심과 해외락탈, 상업적리익을 추구하려는 명주들, 부유상인들의 리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조선침략정책이 세워지게 되었다.

일본의 도요토미정권은 저들의 흉악한 령토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침략전쟁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키었다.

도요토미정권은 권력기반을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의 어느 한 법정에 있는 인이다. 이날 법정에는 총으로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5명의 범죄자가 있다. 특이한것은 그들모두가 하나와 같이 똑같은 검은테안경을 쓴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검사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한 피고인에게 다른 4명이 전에 안경을 쓴적이 있는지를 묻자 그는 처음 낄고 대답했다. 그 4명이 쓴 안경은 모두 도수가 없는것으로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한 한갖 도구였던것이였다. 미국에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착하고 어질게 보이기 위해 몸보다 큰 양복을 입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가 하면 무도수안경까지 리용하고있다. 그를 증명하는 자료가 또 있다. 최근 미국을 크게 뒤흔든 발레사 로빈슨사건이다. 2명의 남자공모자와 함께 자기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17살

들은 임진전쟁을 공공연히 찬미하면서 군국주의를 선동하고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학회는 일본사무라이들이 도발한 임진전쟁의 침략적성격과 천인공노할 죄악을 까밝히고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반동들의 제침야망에 경중을 울리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2. 임진전쟁은 력사에 류례없는 살인, 락치, 락탈전쟁

임진전쟁시기 일본사무라이들은 도처에서 우리 민족을 대량살륙하고 일본으로 끌어가 노예로 동을 강요하였으며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값진 문화재들을 다치게 하였다. 제1차 침입때 살인악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풍경을 펼쳐놓았다. 전쟁 전기간 일본살인귀들에 의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제2차 침입때 왜적들의 조선인 살륙만행은 절정에 달하였다. 살인괴수 도요토미는 조선에서의 대량학살만행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극적 조장되는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만들어 한다고 하면서 남녀로소 가림없이 모두 목을 잘라 일본에 보낼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해마다 군대를 출동시켜 조선사람들을 온통 죽여버려 조선을 빈 땅으로 만든 다음 서로 일본에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옮겨 조선에 살게 하고 동로의 사람들을 옮겨 서로에 살게 하면 10년후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을것》이라고 떠벌였다. (《간양록》)

이 사실은 당시 일본사무라이 지배층이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명주를 기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도요토미는 이를 위해 1597년 6월 쓰시마도주의 부하를 조선에 보내어 《우선 일본군은 적국(전라도)지방에 진격하여 적국민을 죽일것을 명령한다. 충청(충청도, 경기)과 그밖의 도들에서는 알아서 평정하라.》고 뇌까렸다.

이놈은 《사람의 귀는 돌이라도 고는 하나이니 조선사람의 코를 베어 머리를 대신하라. 군사 한명이 코 한되적으로 수량이 찬 후에야 생포하는것을 허락한다.》는 잔인한 명령까지 하달하였다. (《고려재출진법도》 제17항, 《간양록》)

이에 따라 왜놈졸병들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마구 죽이는것을 출세의 길로, 도락으로 여기면서 사람살양에 퍼는이 되여 날뛰었다. 침략군들은 배여낸 조선사람의 코를 모아 도요토미가 과격한 《에즈께》(위법감찰관)들에게 보냈으며 《에즈께》들은 살인자들에게 코학인증을 내어주고 코는 일본에 보냈다. 도요토미는 조선에서 보내온 코를 받아서는 직접 세어 확인하고서도 감사장을 보내어 격려해주었으며 신하들도 그 본을 따 살인자들에게 감사장을 보내주었다.

침략군부대들은 1592년 3월 상순부터 기동을 시작하였다. 3월 13일에 발표된 《일본방략》에 의하면 1차침공군은 1번대로부터 9번대까지 총 15만 8 700명에 달하는 수군 등 도합 20여만명이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드디어 1592년 4월 13일 우리 나라의 부산에 대한 공격으로 임진전쟁을 도발하였으므로 이로 하여 우리 인민은 7년간이나 전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임진전쟁에 참가하였던 오가우찌 히데모토는 《조선이야기》(하)에서 쿠무덤(쿠무덤은 후에 쿠무덤으로 개칭)에 묻힌 수가 21만 4 752개로서 그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수는 18만 5 738개라고 밝혔다.

학살된 사람모두가 코를 잘리운것은 아니였고 또 베여낸 코가 빠짐없이 묻혔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시 적들이 학살된 조선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것이 명백하다. 어느 한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왜적들은 2차 침공때만도 11만 3 300여명을 살해하였다. 여기에 1차 침공때 부산, 동래, 한성, 평양, 전주 등지에서 대량학살한 사람들도 합하면 그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중조관계사론문집》 중문)

이 모든 사실은 일본침략군에 의한 학살같은 대량학살만행이 조선에 대한 지배와 조선인명주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감행된 일본의 투대형국가범죄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임진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락치하여 그들에게 노예로 동을 강요하거나 지어 다른 나라들에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였다. 임진전쟁을 일명 도자기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사무라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도자기들을 락탈해가는 한편 수많은 도공들을 락치해갔다. 우리 나라에서 도자기생산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전라도 남원에서만도 일본침략군에 의하여

명은 수도에 두기로 하였다.

도요토미는 침략무력을 준비하는 한편 1591년 1월 연해고을들에 명령하여 수천척의 전함과 수송선을 못게 하였으며 소 요시모토에게 쌀과 은, 병기, 화약 등을 주면서 침략군의 선봉과 길잡이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 요시모토는 쓰시마에서 조선의 지리를 잘 알고 조선말에 정통한 40여명을 선발하여 여러 부대의 길잡이로 대끼시켰으며 바다길안내자들도 준비시켰다.

1592년 2월 도요토미는 조선침략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선지도를 만들게 하였는데 6가지 색으로 8도를 구분하여 《백국》(경상도), 《적국》(전라도), 《청국》(충청도, 경기), 《황국》(강원도, 평안도), 《흑국》(함경도), 《록국》(황해도)이라고 불렀다. 도요토미는 이 지도를 장수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은 경상도나 전라도라는 명칭이 왜인민의 귀에 설었던 사정과 관련되었다. (《일본전사》 조선역 구참모본부편)

침략군부대들은 1592년 3월 상순부터 기동을 시작하였다. 3월 13일에 발표된 《일본방략》에 의하면 1차침공군은 1번대로부터 9번대까지 총 15만 8 700명에 달하는 수군 등 도합 20여만명이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드디어 1592년 4월 13일 우리 나라의 부산에 대한 공격으로 임진전쟁을 도발하였으므로 이로 하여 우리 인민은 7년간이나 전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임진전쟁에 참가하였던 오가우찌 히데모토는 《조선이야기》(하)에서 쿠무덤(쿠무덤은 후에 쿠무덤으로 개칭)에 묻힌 수가 21만 4 752개로서 그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수는 18만 5 738개라고 밝혔다.

학살된 사람모두가 코를 잘리운것은 아니였고 또 베여낸 코가 빠짐없이 묻혔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시 적들이 학살된 조선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것이 명백하다. 어느 한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왜적들은 2차 침공때만도 11만 3 300여명을 살해하였다. 여기에 1차 침공때 부산, 동래, 한성, 평양, 전주 등지에서 대량학살한 사람들도 합하면 그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중조관계사론문집》 중문)

이 모든 사실은 일본침략군에 의한 학살같은 대량학살만행이 조선에 대한 지배와 조선인명주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감행된 일본의 투대형국가범죄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임진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락치하여 그들에게 노예로 동을 강요하거나 지어 다른 나라들에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였다.

임진전쟁을 일명 도자기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사무라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도자기들을 락탈해가는 한편 수많은 도공들을 락치해갔다.

우리 나라에서 도자기생산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전라도 남원에서만도 일본침략군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명주를 기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도요토미는 이를 위해 1597년 6월 쓰시마도주의 부하를 조선에 보내어 《우선 일본군은 적국(전라도)지방에 진격하여 적국민을 죽일것을 명령한다. 충청(충청도, 경기)과 그밖의 도들에서는 알아서 평정하라.》고 뇌까렸다.

이놈은 《사람의 귀는 돌이라도 고는 하나이니 조선사람의 코를 베어 머리를 대신하라. 군사 한명이 코 한되적으로 수량이 찬 후에야 생포하는것을 허락한다.》는 잔인한 명령까지 하달하였다. (《고려재출진법도》 제17항, 《간양록》)

이에 따라 왜놈졸병들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마구 죽이는것을 출세의 길로, 도락으로 여기면서 사람살양에 퍼는이 되여 날뛰었다. 침략군들은 배여낸 조선사람의 코를 모아 도요토미가 과격한 《에즈께》(위법감찰관)들에게 보냈으며 《에즈께》들은 살인자들에게 코학인증을 내어주고 코는 일본에 보냈다. 도요토미는 조선에서 보내온 코를 받아서는 직접 세어 확인하고서도 감사장을 보내어 격려해주었으며 신하들도 그 본을 따 살인자들에게 감사장을 보내주었다.

침략군의 살인죄악을 고발하는 이러한 교수집장과 코학인증, 감사장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야마구치현 문서보관소, 아마기시 야기즈키향토관, 가고시마현 력사자료센터, 도쿄대학 사료편찬소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 보관되어 전해지고있다.

임진전쟁에 참가하였던 오가우찌 히데모토는 《조선이야기》(하)에서 쿠무덤(쿠무덤은 후에 쿠무덤으로 개칭)에 묻힌 수가 21만 4 752개로서 그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수는 18만 5 738개라고 밝혔다.

학살된 사람모두가 코를 잘리운것은 아니였고 또 베여낸 코가 빠짐없이 묻혔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시 적들이 학살된 조선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것이 명백하다. 어느 한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왜적들은 2차 침공때만도 11만 3 300여명을 살해하였다. 여기에 1차 침공때 부산, 동래, 한성, 평양, 전주 등지에서 대량학살한 사람들도 합하면 그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중조관계사론문집》 중문)

이 모든 사실은 일본침략군에 의한 학살같은 대량학살만행이 조선에 대한 지배와 조선인명주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감행된 일본의 투대형국가범죄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임진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락치하여 그들에게 노예로 동을 강요하거나 지어 다른 나라들에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였다.

임진전쟁을 일명 도자기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사무라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도자기들을 락탈해가는 한편 수많은 도공들을 락치해갔다.

우리 나라에서 도자기생산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전라도 남원에서만도 일본침략군에 의하여

락병의, 심당길 등 43명의 도공이 락치되었다.

락치되어간 조선인도공들에 의하여 일본서남부의 여러 지방에서 도자기문화가 개화되게 되었다.

일본침략자들은 도자기기술자들뿐아니라 지어 옷만드는 기술자, 두부만드는 기술자들까지도 락치해갔다. 임진전쟁후 일본의 여러 지방에서 우리 나라의 정서가 짙은 염직기술이 오래동안 전해져왔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락치해간 염직기술자들에 의해 전해진것이었다고 한다.

일본침략군은 또한 조선에서 수많은 녀성들을 락치하여갔다.

도요토미는 부하들에게 내려보낸 명령서라는데서 조선인도공 가운데서 세공을 하는자와 봉관(옷만드는 사람), 재간좋은 녀자 그리고 젊고 예쁜 녀자들을 선발할것을 지시하였다. (《나베시마가 문서》 일본)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옛 문헌에서는 《왜적들이 평양의 량도처에서 무덤들을 파헤치는 바람에 적들의 감정지역 그 어디 서나 정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선조실록》 권63)

왜적들은 평양을 감정한 후 부벽루와 고려시기의 승인전을 불태웠으며 영성전과 려광정, 진사각, 풍월루, 대동관, 청화관 등 수많은 건축물들을 다치는대로 파괴하였다. 놈들은 황해도에 기여하여 함흥본궁을, 황해도에서는 소헌서원 등을, 개성에서는 리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목청전과 성균관을 불태우고 파괴하였다. (《쇄미록》 상 권2)

적장 가도 기요마사가 경주의 불국사를 불태워버리자 도요토미는 격려편지를 보내주었다.

임진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은 귀중한 문화재들도 수없이 락탈해갔다. 프로투갈인이 쓴 《일본서》에 의하면 당시 일본침략군우두 머리들의 락탈만행은 더 말할것도 없고 배사공, 운반관, 천민들까지도 조선에서 문화재들을 락탈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광분하였다.

왜인들의 도소서각, 락탈만행에 의하여 귀중한 문화재보인 《리조실록》은 전주소고본만 보존되고 춘추관, 충주, 성주사고본은 모두 소실되게 되었다. 도요토미의 양자이며 침략군의 총대장이었던 우끼다 히데이에 의해서 조선의 국보인 《고려대경》을 모두 락탈해갔다.

왜적들의 락탈만행에 의하여 임진전쟁이전에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도서의 대다수가 일본에 실려갔으며 이놈들은 락탈해간 수십만권의 도서로 곳곳에 빼앗아 일본까지 새워놓았다.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에로 팔아먹었다. 나가사키, 하카타 등의 항에는 조선사람들을 노예로 팔기 위한 전문적인 노예시장까지 생겨났으며 그들은 당시 보통매매가격의 1/5정도인 쌀 2섬 4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었다.

오늘도 일본의 각지에는 조선녀인의 묘들과 도공들의 일터, 조선식거리들이 남아있어 일본사무라이들의 잔악한 락치범죄만행을 고발하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을 락치하여 끌여가고 노예로 팔아먹었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던것을 파괴하고 락탈해갔다.

일본침략자들은 수도 한성을 점령한 후 경북공과 조묘를 불사르고 선릉(제9대왕 성종의 무덤)과 정릉(제11대왕 중종의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을 락탈하고 심지어 관복을 불태워버리는 만행

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선조실록》 권26, 권27)

당시 적들이 부장품을 얻기 위해 도처에서 무덤들을 파헤치는 바람에 적들의 감정지역 그 어디 서나 정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선조실록》 권63)

왜적들은 평양을 감정한 후 부벽루와 고려시기의 승인전을 불태웠으며 영성전과 려광정, 진사각, 풍월루, 대동관, 청화관 등 수많은 건축물들을 다치는대로 파괴하였다. 놈들은 황해도에 기여하여 함흥본궁을, 황해도에서는 소헌서원 등을, 개성에서는 리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목청전과 성균관을 불태우고 파괴하였다. (《쇄미록》 상 권2)

적장 가도 기요마사가 경주의 불국사를 불태워버리자 도요토미는 격려편지를 보내주었다.

임진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은 귀중한 문화재들도 수없이 락탈해갔다. 프로투갈인이 쓴 《일본서》에 의하면 당시 일본침략군우두 머리들의 락탈만행은 더 말할것도 없고 배사공, 운반관, 천민들까지도 조선에서 문화재들을 락탈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광분하였다.

왜인들의 도소서각, 락탈만행에 의하여 귀중한 문화재보인 《리조실록》은 전주소고본만 보존되고 춘추관, 충주, 성주사고본은 모두 소실되게 되었다. 도요토미의 양자이며 침략군의 총대장이었던 우끼다 히데이에 의해서 조선의 국보인 《고려대경》을 모두 락탈해갔다.

왜적들의 락탈만행에 의하여 임진전쟁이전에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도서의 대다수가 일본에 실려갔으며 이놈들은 락탈해간 수십만권의 도서로 곳곳에 빼앗아 일본까지 새워놓았다.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양취산법》,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들을 번역하여 수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수학인 화산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기술발전사》 4 리조전지)

일본사무라이들은 도서만이 아니라 동화자와 인쇄까지 락탈해갔다. 실제로 적장 우끼다 히데이에 한성에 침입하였을 때 교서관에서 동화자 약 9만자와 인쇄기를 락탈하여 도요토미에게 바쳤다.

일본사무라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많은 미술작품들도 훔쳐갔는데 그 가운데서 《보살삼존십왕도》, 《당회석가존》, 《양류관음상》, 《오불존상》 등 국보적인 불교미술작품의 대다수가 지금도 일본에 있다고 한다. 왜적들이 락탈해간 조선종들도 오늘날 사이다이지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곳에 남아있다.

참으로 임진전쟁은 일본사무라이들이 조선의 우수한 모든것을 강그리 락탈하고 훔쳐간 전대미문의 락탈전쟁이었다. 하기에 일본인 학자까지도 《히데오시의 침략전쟁은 조선문화를 강그리 일본에 날라간 문화락탈전쟁이기도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불굴의 기상과 애국전통을 힘있게 과시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지난날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은 침략과 전쟁으로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준 적은 우리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과거죄책을 성실하게 반성하지 않고있뿐만아나 오�히려 침략전쟁을 미화반식하면서 군국주의선동을 일삼고있다.

최근년간에 감정통과된 력사 교과서들의 내용만 보아도 《전국통일을 위한 히데오시는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고 천황과 더불어 대륙을 옮겨가 동아시아로부터 인디아까지 지배하려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는데 이르렀다.》고 하면서 임진전쟁을 아시아의 전지역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으로, 의기왕성해진 도요토미의 《장거》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조선이 중국으로의 일본의 통행허가를 거절》하였기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전쟁을 의곡하였으며 《조선출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전쟁의 침략적성격을 은폐하였다.

최대한 과거를 애써 감추려는 것은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불순한 속심의 발현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자기의 과거거버죄를 반성하고 청산할대신 오�히려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 시험으로 걸고 들면서 못게 늘어내고있다.

제반사실은 세월은 흘렀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것이 일본의 조선침략야망이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일본이 지난 임진전쟁에서 당한 수치를 매를 망각하고 재침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던 수백년을 두고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복수의 불벼락, 선군조선의 총대맛을 특특히 보게 될것이다.

《보안법》은 반역통치를 뒤받침하기 위한 과소악법

범민련 남측본부 전, 현직 성원들이 단죄

조국통일



로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강성원의 물놀이장

리조시기 중앙군영 - 《훈련도감》

리조시기 중앙관청인 《훈련도감》은 임진조국전쟁때 인민들속에서 높은 상무기풍을 발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군사관계분야의 관청이다.

1592년 4월 일본침략자들은 수십만의 대군을 내몰아 우리 나라를 불에 칩입하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수많은 문화재들을 불태우고 파괴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여 리조봉건정부에서는 1593년 8월 《훈련도감사목》을 발표한 후 조총과 화포로 무장한 포수를 양성할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그해 10월에 《훈련도감》을 창설하였으며 도감의 관리들을 임명하

고 좌영과 우영을 두어 본격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도감》의 군사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유생, 한량, 양인, 아전, 풍노비, 사노비 등 각계각층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들속에서도 힘이 세고 건장한 장정들을 뽑아 훈련시키었다.

《훈련도감》의 기본임무는 우선 여러가지 훈련을 통하여 전범을 익숙시키며 특히 조총사격과 포사격술에 정통하게 하는것이였다. 그밖에 남쪽에 등지를 들고있는 왜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에 적극 참가하며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등의 임무도 있었다.

《훈련도감》이 설치됨으로써 봉건조국의 급료에 의

하여 유지되는 직업적상비군이 출현하고 조총과 포로써 먼거리에서 왜적들을 소멸할수 있는 정예한 군사가 꾸러지게 되었다.

《훈련도감》이 설치된지 1년남짓한 기간 평양에서 수많은 인간의 아들들까지 앞을 다투어 《훈련도감》의 군사로 입대하여 맹렬한 훈련을 진행해왔다고 당시 군사최고관청이었던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실례를 보고한 자료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훈련도감》의 실체가 인민들의 상무기풍을 높이고는 적국 참가하며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등의 임무도 있었다.

《훈련도감》이 설치됨으로써 봉건조국의 급료에 의

우리 나라는 콩의 원산지이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콩으로 콩밥, 콩국, 콩죽, 콩떡, 콩강정, 콩자반 등 여러가지 콩음식을 만들어먹었다. 그리고 콩문화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 심어 먹는 콩종류도 다양해져 그 가지수가 또한 수십가지로 헤아리게 되었다.

콩나물은 남새를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던 그 옛날에 모래무지에서 자라는 콩밭에서 착안되어 콩으로 나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행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콩나물은 주로 겨울용 남새대신으로 집집마다 길러먹었으며 콩나물이 절쳐 보급되면서 알이 크지 않은 콩나물콩을 따로 만들어 심었다. 콩나물은 인삼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 나는 콩과 우리나라의 물로 키워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삼을 재배하고있지만 그 약효가 우리나라 개성인삼을 따를수 없듯이 다른 나라에서 콩으로 콩나물을 기르다 해도 그 맛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콩자체에는 비타민C가 없지만 콩나물을 기르면 많은 산소를 모두 수렴에 의거한다면 1인당 3천㎡의 수림면적이 요구된다.

전쟁승패를 바꿀변한 콩나물

은 비타민C가 생겨 콩나물 100g만 먹어도 하루필요량의 3분의 1을 섭취할수 있다. 로일전쟁시기 일본군에 소위된 위순(려순)요새에서 로씨야장병들이 비타민C의 결핍으로 집단괴혈병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손을 들고 요새를 일본에 내어준 일이 있었다. 당시 위순요새안에는 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만약 로씨야사람들이 콩나물을 길러먹을 줄 알았다면 승패가 역전되어 동북아시아세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콩나물은 숙취(술에 폭취하여 취기가 오래가는 것)를 푸는데도 효효가 있다고 전해지고있다.

옛날부터 콩나물은 해장에 좋다고 하여 국으로 많이 끓여먹었다. 확증된데 의하면 술기운을 해소하는 아스팔트산이 콩나물뿌리에 87%, 콩나물줄기에 70%, 콩나물대기리에 58% 들어있다고 한다. 해장국감에도 콩나물을 썰던 우리 선조들의 슬기도 놀랍지만 해장국으로 끓일 때 콩나물뿌리는 다듬지 말아야 한다고 한 지혜 또한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본사기자

어떤 선비가 어쩌나 립색하였던지 어디선가 소금에 절인 물고기 한마리를 구해다가 불에 매달아놓고 아침저녁 끼니때마다 밥 한술을 떠놓고는 한민씩 쳐다보

자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온 식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게 한번 쳐다보는 것 참 맛나는 반찬이다. 그 꼬리가 더욱 맛있는걸.》하고 한마디씩 중얼거리는것이였다.

한번은 그의 어린 자식이 밥 한술을 입에 넣고 고기를 두번씩이나 쳐다보았다. 그것을 보고 선비가 꾸짖었다.

《이놈아, 한번이면 그만

이찌 짜서 먹겠느냐?》 하루는 선비가 친구로부터 부채 한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얘들아, 이 부채가 참 귀하고 좋은 물건이다. 너

은 너희들이로구나.》 하며 꾸짖고 만아들을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만아들이 조용히 대답하였다.

《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물건을 쓸 줄 모르오이다. 부채는 20년은 무제없이 쓸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립색한 선비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어떻게 하면 20년 쓸수 있느냐?》

《네. 부채라는것은 접었다 댔다 하면 손상되는 물건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찌서 바람밖에 매어놓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 능히 20년은 쓸수 있습니다.》

본사기자

유모아 20년 쓸수 있는 부채

3

앞차 창력에 놓은 들국화 묶음이 비스듬히 비쳐들어오는 아침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어졌다. 차체의 미세한 진동에도 가볍게 몸을 떠는 꽃잎들을 이속도록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었다.

나라의 분열이 인간들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그 어떤 한 순간의 고통이나 위안으로도 지울수 없다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잇을수 없는 그 9월의 하루가 있는 뒤에 제주도의 부부한테선 뜻밖의 가슴아픈 사연들이 련속되었다.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들부부에게 마련해주신 대동강기슭의 살림집이 불에 탔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화재현장으로 달려가시였을 때에는 연기 피어오르는 재무지앞에 고전히녀성이 두손을 늘어

뜨린채 망연히 서있었다. 남편인 강구찬은 그앞에서 노한 표정을 짓고 열면 목소리로 질책했다.

《이 집이 어떤 집이게 사소한 불찰로 불태우다니...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를 무슨 낱으로 대하겠소! 장상 격정만 덧없어드리니 말이요.》

때 마침 도착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의 앞을 막아나시며 간곡하게 만류하시였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주도에 두고 온 애들을 생각하다가... 어머니된 심정은 그렇답니다.》

어머님의 생각이 옳으시였다. 그날 저녁 고전히녀성은 밤을 지으며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과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불뿜거품을 잘못하여 나무दान에 불이 달린것이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하나 절절

하게 하시던 말씀이 오늘도 귀전에 생생히 들려오는듯싶으시였다.

《강구찬동무도 부인과 함께 통일을 위해 자기의 정춘도 생필도 다 바쳐 싸우오지 않았나요. 통일이 무엇때문인가요.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과 겨레의 피줄을 잇고 사랑과 정을 잇자는것이요. 그 사랑과 정, 그리움의 몸부림을 뜨겁게 리해하시야지요.》

그 사랑과 정이 없으면 통일도 없습니다. 그 사랑과 정의 뜨거운 열정이 통일이라고 전생각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그후에 불탄 집을 새로 일떠세우고 우리는동안 고전히녀성을 명승지에 휴양보내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 제주도의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그리시 고는 수령님과 함께 휴양소

에 오시는 걸음으로 고전히녀성을 만나시어 가족을 데려오게 하신 수령님의 은정깊은 조치를 알려주셨고 그 무도 해주시였다.

고전히녀성은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어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고전히녀성의 등을 쓸어주시며 기본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눈물을 거두라고, 애들과 만날 날을 생각하며 즐겁게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 마음속에 비분과 눈물을 머금고계셨다는것을 동행하셨던 어르신 장군님께서만은 잘 알고계셨다. 오늘날의 장군님 처럼 그날의 어머니께서도 데려오는 고전히녀성의 자녀들뒤에 못을 수천수만의 자식들과 부모모형제들, 친척친우들의 모습들이 보이셨던것이였다.

장군님의 추억속엔 삼일포기슭에서 권총을 뽑아드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였다. 그날에 강산을 울리던 총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분열의 고통을 지니신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였

한 산소를 모두 수렴에 의거한다면 1인당 3천㎡의 수림면적이 요구된다.

나무와 인간생활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하는 작용도 하는데 넓은잎나무림은 1ha당 68t의 먼지를, 바늘잎나무림은 32t의 먼지를 가

에 이르기까지의 그 로정보다 몇백, 몇천배나 더 밀고 간고한 정신적인 피로, 사색과 탐구, 심뇌의 가시덤불길을 어떻게 헤쳐오셨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 고심 어린 사색과 탐구, 낯과 밤을 잇는 그 선군장정의 길에서 부닥치는 모든것을 이겨내실 결심안도 찾아오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생선들의 모습 그대로 모신 금수산 기념궁전이였고 어머니를 모신 혁명렬사용이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과 어머니앞에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고 힘을 얻어 창정의 길에 오르곤 하시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였다.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신데 뒤이어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을 이룩하신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였다. 하지만 귀환의 이튿날 제일먼저 애국렬사용을 찾게 되심은 무엇때문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제주도부부의 합장묘앞에 손수 껴으신 들국화묶음을 놓으시였다. 그리시고

이날도 역시 두 케도전차안은 출근길에 오른 손님들로 붐비였다.

《애기 어머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목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한 청년이 애기 어머니에게 깎듯이 자리를 권하고있는것이였다.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니 그냥 앉아있으라고 사양하는 애기 어머니, 그레도 계속 자리를 권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옆에서도 한두마디씩 하였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성의를 받아주는것도 인사라고요.》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들로 하여 전차안에는 단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있었다.

어디서나 고상한 레의도덕기풍이 차넘치는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체험하는것만 같아 청년도 애기 어머니도 그리고 전차안의 손님들도 두가 가슴이 후터워오르는것을 금치 못하는 듯싶었다.

고상한 레의도덕,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이며 전통이다.

고상한 레의도덕은 우리 민족의 미풍

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비도덕적인 현상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정의와 의리, 레의를 귀중히 여기도록 하였다. 우리 인민은 밭갈이와 모내기, 김매기와 같은 농사일과 우물파기, 제방공사 등 어려운 일들을 힘을 합쳐 하는 것을 고유한 풍습으로 여겨왔다. 집을 지을 때에는 물론 이사를 가거나 새집들이를 할 때에도 이웃들이 모두 떨쳐나서 도와주었다. 명절이나 결혼식때면 레의히이 옷들을 청하여 함께 즐기었고 여느때보다도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이웃들과 나누어먹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겨왔다.

이러한 가정적교양과 사회적풍조속에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나서 자란 고향과 다정한 이웃들, 나아가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도 간직하게 되었다.

부모들을 잘 모시고 옷사람과 스승을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도덕의 리를 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레의도덕기풍은 일찍부터 세상에 소문이 났었다. 고대시기에 벌써 이웃나라에서는 우리 나라를 덕망이 높고 집값은 사람, 착한 사람, 성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에서 군사국으로 불렀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서로 양보하고 길을 비켜준다.》, 《녀성들의 행실이 단정하고 부부간의 성의

가 두터우며 언제나 머리단장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밤에 문걸고 자는 집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레의도덕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레의도덕에서 최고표현으로 되는 것은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겨레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불멸의 선군령도로 존엄있는 민족으로 위용될치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왔다.

1994년 7월과 2011년 12월의 대극상을 당하고 우리 겨레가 흘린 피눈물의 바다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기령도자를 진실으로 따르고 사랑해왔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반민년의 기나긴 력사를 이어오며 창조하고 빛내여온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레의도덕기풍은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되고 있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휴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진실으로 받들어모시며 그이의 령도따라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이룩하기 위한 올해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사상의학이 중시하는 체질과 건강 (4)

대양인

대양인은 폐장이 충실하고 간이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기때문에 간이 있는 옷부위가 발달하고 간이 있는 허리부위가 약하다.

목덜미가 실하고 머리통이 크며 얼굴이 약간 거뭇하고 살이 많지 않다. 이마가 넓고 눈에서 광채가 난다. 간이 허약하기때문에 척추와 허리가 약하며 오래 앉거나 서있지 못하고 기대기를 좋아하며 드러눕기도 잘한다. 대체로 몸이 마른편이다.

너저는 몸이 충실하여도 아이를 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이 약하여 자궁벽이 안되기때문이다. 사교력이 뛰어나고 사귀기

를 잘하며 판단력과 진취성이 강한 반면에 계획성이 적고 대담하지 못하다.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며 자기와 한 일에는 후회할줄 모른다. 때로는 지나친 영웅심과 자존심을 나타내며 마음먹은 일이 잘 안될 때에는 크게 분노하고 병을 초래한다. 남이 생각내지 못한것을 생각해낸다.

대양인에게는 두가지 특유의 병이 있다. 폐기관이 지나치게 실하기때문에 식도염, 만성, 식도경련과 같은 증세가 있어 음식을 먹은 직후 토하거나 목구멍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으며 아침에 먹은 음식을 저녁에 토하기도 하는데 이를 열역반위증이라고 한다.

허리와 다리가 약하여 자

육풍이 걸지 못한다. 이는 간이 허약한것이다.

음식물로는 메밀이 가장 좋으며 김, 조개, 붕어 등이 약으로 된다. 오갈래는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근육이 당기는데 쓴다. 포도뿌리는 딸꾹질을 멈추게 한다. 양두와 메밀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돕는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질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는것은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할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있다.

본사기자 (끝)

라앉한다.

나무는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나무가 우거진 곳의 기운은 나무들이 기운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바람을 잠재우기때문에 비교적 안온하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안본 룡은 고려도 본 법은 못 그린다

* 무슨 일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은과 안식을 찾을진대 잠시나마 선군걸음을 지체할수 없다 말입니다.

동지들! 동지들한테 고향 제주도의 동백꽃을 하루빨리 꺾어서 드리자 해도 이 김정일이 걸음을 서둘러야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서둘러주시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이런 대답소리가 들려오는듯싶은 눈길을 드시어 햇빛넘치는 려사용을 둘러보시였다.

그렇다. 앞에 있는 제주도 려사부부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려사들의 얼굴표정이며 눈빛이머가 다 이렇게 소리같은 웨침을 드리고있었다. 아니, 눈부신 햇빛속에 장군님만을 우리르며 그이께 운명을 맡긴 삼천리강도가, 7천만겨레가 함께 웨치고있었다.

태양은 더욱 눈부신 빛을 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차행림은 통일에국렬사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먼 전선길을 향해 속도를 높기 시작하였다.

(끝)

단편 소설 들국화꽃나발 (4)

글 양의선

뜨린채 망연히 서있었다. 남편인 강구찬은 그앞에서 노한 표정을 짓고 열면 목소리로 질책했다.

《이 집이 어떤 집이게 사소한 불찰로 불태우다니...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를 무슨 낱으로 대하겠소! 장상 격정만 덧없어드리니 말이요.》

때 마침 도착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의 앞을 막아나시며 간곡하게 만류하시였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주도에 두고 온 애들을 생각하다가... 어머니된 심정은 그렇답니다.》

어머님의 생각이 옳으시였다. 그날 저녁 고전히녀성은 밤을 지으며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과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불뿜거품을 잘못하여 나무दान에 불이 달린것이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하나 절절

하게 하시던 말씀이 오늘도 귀전에 생생히 들려오는듯싶으시였다.

《강구찬동무도 부인과 함께 통일을 위해 자기의 정춘도 생필도 다 바쳐 싸우오지 않았나요. 통일이 무엇때문인가요.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과 겨레의 피줄을 잇고 사랑과 정을 잇자는것이요. 그 사랑과 정, 그리움의 몸부림을 뜨겁게 리해하시야지요.》

그 사랑과 정이 없으면 통일도 없습니다. 그 사랑과 정의 뜨거운 열정이 통일이라고 전생각합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그후에 불탄 집을 새로 일떠세우고 우리는동안 고전히녀성을 명승지에 휴양보내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 제주도의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그리시 고는 수령님과 함께 휴양소

에 오시는 걸음으로 고전히녀성을 만나시어 가족을 데려오게 하신 수령님의 은정깊은 조치를 알려주셨고 그 무도 해주시였다.

고전히녀성은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어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고전히녀성의 등을 쓸어주시며 기본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눈물을 거두라고, 애들과 만날 날을 생각하며 즐겁게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 마음속에 비분과 눈물을 머금고계셨다는것을 동행하셨던 어르신 장군님께서만은 잘 알고계셨다. 오늘날의 장군님 처럼 그날의 어머니께서도 데려오는 고전히녀성의 자녀들뒤에 못을 수천수만의 자식들과 부모모형제들, 친척친우들의 모습들이 보이셨던것이였다.

장군님의 추억속엔 삼일포기슭에서 권총을 뽑아드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였다. 그날에 강산을 울리던 총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분열의 고통을 지니신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였

한 산소를 모두 수렴에 의거한다면 1인당 3천㎡의 수림면적이 요구된다.

나무와 인간생활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하는 작용도 하는데 넓은잎나무림은 1ha당 68t의 먼지를, 바늘잎나무림은 32t의 먼지를 가

에 이르기까지의 그 로정보다 몇백, 몇천배나 더 밀고 간고한 정신적인 피로, 사색과 탐구, 심뇌의 가시덤불길을 어떻게 헤쳐오셨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 고심 어린 사색과 탐구, 낯과 밤을 잇는 그 선군장정의 길에서 부닥치는 모든것을 이겨내실 결심안도 찾아오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생선들의 모습 그대로 모신 금수산 기념궁전이였고 어머니를 모신 혁명렬사용이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과 어머니앞에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고 힘을 얻어 창정의 길에 오르곤 하시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였다.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신데 뒤이어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을 이룩하신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였다. 하지만 귀환의 이튿날 제일먼저 애국렬사용을 찾게 되심은 무엇때문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제주도부부의 합장묘앞에 손수 껴으신 들국화묶음을 놓으시였다. 그리시고

라앉한다.

나무는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나무가 우거진 곳의 기운은 나무들이 기운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바람을 잠재우기때문에 비교적 안온하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안본 룡은 고려도 본 법은 못 그린다

* 무슨 일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은과 안식을 찾을진대 잠시나마 선군걸음을 지체할수 없다 말입니다.

동지들! 동지들한테 고향 제주도의 동백꽃을 하루빨리 꺾어서 드리자 해도 이 김정일이 걸음을 서둘러야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서둘러주시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이런 대답소리가 들려오는듯싶은 눈길을 드시어 햇빛넘치는 려사용을 둘러보시였다.

그렇다. 앞에 있는 제주도 려사부부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려사들의 얼굴표정이며 눈빛이머가 다 이렇게 소리같은 웨침을 드리고있었다. 아니, 눈부신 햇빛속에 장군님만을 우리르며 그이께 운명을 맡긴 삼천리강도가, 7천만겨레가 함께 웨치고있었다.

태양은 더욱 눈부신 빛을 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차행림은 통일에국렬사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먼 전선길을 향해 속도를 높기 시작하였다.

(끝)